

종합

“중요한 경기 최선 다하겠다”

우승 후보 5인의 결전의지

“모두에게 공평한 게임이다. 반드시 우승하겠다”

F1 코리아 그랑프리에 출전하는 우승 후보 5명이 코리아 그랑프리에 대한 결전의 의지를 밝혔다.

현재 올 시즌 드라이버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마크 웨버는 21일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서킷은 새 트랙 인만큼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웨버는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우승하면 시즌 우승이 확정되는 것을 알고 있는지는 질문에 “미리 계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알론소는 우승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는 “올해 페라리로 이적한 뒤 편안하게 경기를 치르면서 최고의 시즌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면서 “결선이 열리는 일요일에 이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베넬도 “이번 대회는 경기장이 미지수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지난 2007년 키미 라이코넨은 두 차례 레이스에서 17점 차를 뒤집었다. 우승은 가능한 일”이라고 전의를 드러냈다.

루이스 해밀턴도 우승에 대한 갈망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두 다 우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젠스 버튼도 “이번 코리아 그랑프리에는 드라이버와 팀 순위 모두에서 아주 중요한 경기”라며 각오를 다졌다.

코리아 그랑프리, 월드 챔피언 가른다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지구촌 F1 팬들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열리는 사상 첫 F1 대회인데, 2010 포뮬러원 월드 챔피언십(Formula 1 World Championship) 시리즈 우승 트로피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22일 국내 최초로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에서 개막하는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3일간의 레이스에 들어가는 코리아

선두권 5명 각축...이번 대회 성적이 변수

그랑프리는 19개 대회로 이뤄진 올 시즌 중 17번째로 치러지게 된다. 한국대회를 제외하면 올 시즌 남은 대회는 브라질(11월5일~7일)·아부다비(11월12일~14일) 등 단 두 번 뿐이다. 그러나 미하엘 슈마허가 5년 연속 챔피언에 오르는 등 한 명이 독주하던 시대도 아니다.

지난 10월 16번째 대회로 치러진 일본 그랑프리까지만 보면 5명의 드라이버가 선두권을 형성하며 승부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12개 팀 24명의 드라이버 가운데 현재 선두는 마크 웨버(호주·레드불 레이싱팀)로 220점. 그 뒤를 2위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206점), 3위 세바스찬 베텔(독일·레드불 레이싱·206점)이 바짝 추격하고 있다. 4위 루이스 해밀턴(영국·맥라렌·192점), 5위 젠스 버튼(영국·맥라렌·189점) 등의 순이다. 올 시즌 성적도 웨버가 4승, 알론소 3승, 베텔 3승, 해밀턴 3승 등으로 치열하다.

1위와 2위, 3위의 점수 차이는 고작 14점에 불과하다. 또 공동 2위와 4위 해밀턴도 14점 차이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점 방식은 올해 대회부터 변경되면서 1위부터 10위까지 25·18·15·12·10·8·6·4·2·1점씩을 주고 있다.

지난 시즌까지 대회마다 1위·2위 간 2점에 불과했던 점수 폭이 크게 늘어난 것. 따라서 코리아 그랑프리 우승으로 종합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탓에 드라이버들이 한국 대회에 임하는 각오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영암 서킷을 처음 경험하는 점도 경주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머신(machine·경주차)의 성능, 드라이버의 기술력과 함께 서킷 특성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영암 서킷의 경우 최고 시속 320km까지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직선구간(1.160m)에다, 출발지역 스트레이트 구간(616m)을 지나 첫번째 코너로 접어들면서 드라이버 기술력으로 추월이 가능하다. 빠른 스피드를 내는 드라이버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올 시즌 4개 대회에서 최고속도 랩타임을 기록한 페르난도 알론소에게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C&그룹 전격 압수수색

대검 중수부, 거액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21일 오전 C&그룹 본사와 계열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대기업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관련기사 8면> 중수부가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작년 6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종료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어서 대기업을 겨냥한 기업 수사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중수부는 C&그룹 외에도 대기업 2~3곳의 비리 혐의를 잡고 수사대상으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부는 이날 오전 7시께 서울 교통 C&그룹 본사와 계열사로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중수부는 C&그룹이 상장폐지된 기업이나 부도난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남뉴스>



꼼꼼한 타이어 점검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막을 하루 앞둔 21일 영암 삼호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을 찾은 각 팀의 스태프들이 타이어를 살펴보는 등 경기 준비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F1 이모저모

F1 관람객 비엔날레 입장권 할인 대만 등 외국인 관광객 입국 러시

○광주비엔날레재단은 F1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F1 관람객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F1 대회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과 관계자들이 관람권이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하면 70% 할인된 가격에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한국대회를 보기 위해 전세계 5대(일본1, 중화권3, 태국3)가 임차돼 800여명의 외국인이 21일부터 무안 공항을 통해 속속 입국하고 있다.

특히 이날 대만에서 전세계를 타고 입국한 150명의 대만 마니아들은 주백용(2005년 대만 슈퍼카 챔피언) F1 홍보대사와 함께 대회를 관람하기로 하는 등 한국대회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상강 하구언 도로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5시까지 가변차로가 운영되며 가변차로는 셔틀버스와 VIP, F1 팀 관계자들의 전용노선으로 이용된다. 셔틀버스를 탈 수 있는 환승주차장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옆과 북항, 대불산단내 우편집중국 옆, 대불대 등이 지정됐다.

경주 종료 후에는 목포역이나 목포터미널 등 목포시내로 나가는 관광객들을 위해 해군 3함대에서 목포여객선터미널까지 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

아직도 공사중?

○F1 경주장은 대부분의 공정이 끝났지만 관람객이 앉을 가설스탠드 조립이 될 때까지 작업을 끝내기 위해 안전헬멧을 쓰고 있다.

가설스탠드의 좌석은 약 8만석으로 이중 6만석 정도가 마무리됐지만 나머지 좌석 조립을 위해 인력이 총동원 되고 있다. 기존 인력 1200명에 전남도의 긴급요청으로 1000여명의 군인과 도청직원들이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 미디어센터의 인터넷회선이 불안정해 기자들로부터 문의가 쇄도해 일부 작업을 보완하느라 담당자들이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우리도 끝내 주는 게 있긴 있다. (Cartoon about F1 and investment)

F1맞춰 국제요트대회 목포~제주 20국 참가

F1코리아그랑프리 대회기간 중 목포~제주 구간에서 국제요트대회가 개최된다.

전남도는 ‘전남~제주 국제요트대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20여개 국 50여척의 요트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23일과 24일 1박 2일로 진행될 외항 경주는 목포항→해남 화원반도→진도 조도군도→추자도→제주도 산지항을 항해하는 대회코스로 예정돼 있다. 전남~제주간 항로는 17시간~20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2일부터 목포항과 제주 산지항에서는 각각 내항 요트 대회도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F1 알고 보면 재미 두배 피트스톱

레이스 도중 타이어 교체·차량정비

레이스 도중 타이어 교체 및 차량정비를 위해 멈추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 피트는 서킷 안에 마련된 차량 정비소를 뜻한다.

지난 시즌까지는 레이스 도중 급유를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재급유가 금지됐다. 약 300km를 완주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량은 210~250ℓ다. 재급유 금지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머신은 150kg 이상의 연료를 더 싣고 달리게 됐다. 따라서 지난 시즌까지 레이스 도중 두 차례 피트 스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올해는 타이어 교체를 위한 의무 피트 스톱 한 번만 하는 것이 대체가 됐다. 머신이 피트에 들어와 타이어 4개를 갈아 끼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4초에 불과하다. 그만큼 드라이버뿐 아니라 스태프들의 역할도 크다. 타이어 교환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인력을 ‘피트 크루’라 하는데 팀당 20여명 안팎이다. 1000분의 1초를 다투는 레이스에서 피트 스톱은 종종 승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일명 ‘트랙 밖의 레이스’로 불린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투자하실분 모십니다. 당사는 스포츠 레저용 글러브를 생산유통하는 회사로써 금년도 히트제품인 SR30, SUNGLOVE(특허등록)의 판매처 증가와 판매성원에 힘입어 즐겁게 수익을 함께 나누실 진실한 투자자를 찾습니다. 제일에스지 문의. 062-610-5454 · 5453 H.P. 010-5681-8084 e-mail : pjmhjom@yahoo.co.kr

손해사정사 개강 11월6일(土) •보 험 계 약 법(土)-PM 2~8시 •자동차보험이론(日)-PM 2~8시 <2개월 완성> 최고 수준의 강의로 여러분의 합격을 책임집니다. 새롬행정고시학원 전대후문, 영진빌딩 5층 ☎ 268-8111~2

조선이공대학 2010년 유망신성학과 프랜차이즈 서비스창업과 우리과 특징 5가지 1. 창업실패의 85%는 1년 이하의 준비기간 2. 2년 간의 실무적인 창업준비로 100% 사업성공 3. 20~30대 장사,사업으로 10억 모은 정장,대표 특강 4. 창업스쿨, 알짜상권분석, 커피마리스타 등 실무중심 수업 5. 월수익 1000만원 이상 업소의 성공요인 분석

조선대학교 2011학년도 조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전향일정, 학위과정,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등 상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http://www.chosun.ac.kr/~grad 또는 대학원 교학팀 ☎062-230-6401~5 문의 바랍니다.